1/14(금) 창세기 44-47장 다 알지 못할지라도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41:41-45).
큰 권한을 부여받고, 명망 있는 제사장 가문과 혼인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일원으로, 유력인사로, 고위층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정체성은 하나님 백성, 언약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통상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들로 불립니다.
그런데 오늘 식량을 사러가는 형제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불립니다.
이제부터 성경은 민족의 미래가 결정될 중요한 대목마다
이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부를 것입니다(42:5, 45:21, 46:5).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족〉을 입入애굽하게 하십니다(46:1-27).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출出애굽 할 것입니다(46:4, 47:29-30,50:25).
하나님은 그 때까지 민족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고센〉땅을 예비해 주십니다(46:34, 44:32 참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44:7)."

〈후손〉은 선지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룰 **〈남은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셔서 언약 백성을 보존하십니다(44:6-11,47:27).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또한 살리고 계십니다(47:13-16, 50:20).
요셉의 이야기는 개인과 가정사, 평범한 일상을 넘어
하나님 구원사에 꼭 필요한 퍼즐 한 조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손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15:12-21).
야곱의 가족도 당장의 일들을 다 헤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46:3-4).
큰 흑암과 두려움처럼 막막하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15:12),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하실 일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독하며 묵상해 보십시오. **큰 흑암과 두려움의 경험이 있습니까?**
❶ 알 수 없는 미래로 두렵고 막막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❷ 하나님의 응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훗날 섭리였음을 고백한 경험이 있습니까?

시작기도 + 통독 창세기 44-47장 (20:31)